

투데이 칼럼

성공한 자녀와 아버지의 힘

현 대가정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녀교육에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핵가족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줄어들고 어머니 위주 로돼버렸다. 교육은 어머니 몫이고 아버지는 돈만 벌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아이교육은 결코 어머니 힘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전통가정에서 아버지는 엄격하게 훈육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사랑으로 돌보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상적 부모상이 사라진 지 오래다. 잘못된 부모의 자식사랑과 본을 보이지 못한 가정교육의 실종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흔히 유태인의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교육에는 아버지의 심금을 울리는 정신교육이 깃들여 있다.

'아버지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자녀양육및교육참여가 높을수록 학습성취도뿐만 아니라 사회성, 인성, 성취욕구 등에서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버지가 자녀의 어린 시절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다. 10대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순화되어 심리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 특히,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발달에 아버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공한 인물들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 일본 노벨 화학상 수상자 노요리 료지 박사는 아버지가 자신을 화학자로 키웠다고 술회했다. 화학공정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밥상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학원장 고흥주교수 역시 어린시절 바쁜 아버지와 아침밥을 먹기 위해 새벽시에 일어난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부지런함이 몸에 뱌고 했다.

케네디가의 자녀들도 식사시간에 늘사회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이런 토론이 미국 대통령을 탄생시킨 밑거름이 된 것이다.

모차르트는 다섯살 때부터 작곡을 한 천재였다. 그의 천재성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건 아버지였다.

모차르트는 여섯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아버지와 열살이 될 때까지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다녔다.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여행을 통해 아이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역사에 남은 모차르트는 없었을 것이다.

성웅이순신을 등용한 유성룡은 혼자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독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썼다. 자녀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몸소 모범을 보였다. 책을 멀리하는 자식에게 편지로 꾸짖기도 했다. 그의 일대기에서 '서애 유성룡의 집에 가면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로 집안 전체에 묵향이 은은했다.'고 했다. 최고의 아버지는 자녀가 현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깊이 알고, 미래를 열어주는 아버지가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示唆)해 준다.

현대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수사항 몇가지를 꼽아 본다.

첫째,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 둘째, 정신적 기초가 되는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셋째,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 넷째, 존경과 권위로서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녀의 개성에 맞는 꿈을 심어줘야 한다.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자신감과 꿈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린버는 피건스 박사 연구진에 따르면 어릴 때일수록 엄마보다 아빠의 말을 많이 들어야 문장구성력 등 언어 발달이 더 빨라진다고 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줘야 하고, 자녀가 앞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 실제적인 사회적능력을 가르쳐 줘야 한다. 훌륭한 아버지란 사회에서 보람된 일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한편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새로운 아버지를 정립해야 한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말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사회에서 아무리 돈 많고 출세를 했더라도 자식으로부터 미움받는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이다.



김재춘 전. 원주동양초등학교장

사설

영세 자영업 늘어 문제 심각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때라 영세하나마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음은 일론 생각해 반갑게 여겨진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은 감소세인데 우리 전북 지역만 늘고 있다니 말이다.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어떤 병폐같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이 너무 부족한 까닭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할 필요를 느낀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행편을 살펴야겠다는 주문이 그것이다. 이같은 말은 이번엔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있다. 지역 경제를 열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 영세 자영업자들이 밝은 소식이 전해주는 고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세 자영업의 현실을 보면 동종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도는 어렵고 힘들수록 자영

업자들의 행편을 살펴야 한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돌지 않고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지역의 분위기가 이처럼 무거운 것에 대해 전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기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일 것이다. 이같은 불경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문제가 다 상당수는 수 년 내에 섯터를 내리거나 다른 직종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도내 자영업자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선은 전북도에 일자리 창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면에서라도 긍정적이라면 보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지역 경제를 떠받쳐 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자영업자들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섯터를 내리거나 간판을 바꾸어 달지 않도록 격려하고 고무시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가려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이야기다.

비정규 일자리 늘고 있는데 방관할 것인가

전북도에 주고 싶은 물음이 있다. 비정규 일자리만 늘고 있는데 방관할 것인가. 정규 일자리가 대부분인 지금, 전북도는 책임을 짊어줘야 한다. 도내 유명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말로만이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고용 활성화에 다들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비정규나 시간제 일자리는 관철은 일자리가 아니다. 관철은 일자리 만들기는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언급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해버릴 이도 있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때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공공기관과 유명 기업들은 눈을 떠야 한다. 도내 언론사들의 논조를 면밀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번에 비정규 직장인의 비율이 40%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비정규 직장인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정규 직장인의 비율이 40%였을 때의 보도 내용이 시사

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때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비정규 직장인은 9천명이 늘고 정규직 장인은 오히려 3천명이나 줄었으니 말이다.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답답하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지역이 일자리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데 도내 기업들과 전북도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정규 일자리 만들기는 한두 번 시도 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철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의 취업률은 말도 안 된다. 지금의 기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가 별 로임에도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거듭 당부 하거나 관철은 일자리 만들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겠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

차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방차 진입로를 가로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촌각(寸刻)을 다투는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골든타임(Golden Time) 5분 이내 도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육내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골든타임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나 못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구조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소방차 길터주기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소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지켜야하는 활동임을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익산소방서에서도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출동로 확보훈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한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악의적인 소방차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된다.

박형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 당할시 곧바로 신고부터

데이트 폭력이란 남, 여 연인사이 에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폭행, 성희롱, 협박, 상해, 살인, 감금, 명예훼손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많은 연인들이 신고하기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보통 연인들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소한데서라도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물건을 던지고 파손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 지나친 사생활을 간섭하는 행위등이 있는데 당신이 상대방을 정식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건전한 교제를 넘어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제가 되어 연100명 이상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와 적결할

중에 나서고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에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전담담당관, 여성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된 "데이트 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 전담반을 가동하여 필요하면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된다고 판단되면 신고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2016년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1개월간 연인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및 재보기간으로 정하여 각 기능별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이 대응으로 예방자산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나 제보는 112 또는 경찰관서 방문신고로, 상담은 1366번을 이용하면 되고 만약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경찰청 어플리케이션 "폭력자를 찾습니다"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장용길 원산경찰서 서신지구대 경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